

# 장흥군 추진 군립 야구장·천관산 조각공원 '퇴짜'

### 전남도, 영암·보성 등 8개 사업 당위성·기대효과 미흡 이유 재검토 영광군 공공산후조리원, 진도·신안 만원주택 등 사업 추진 속도

장흥군이 추진하려던 군립 야구장 건설 계획과 천관산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퇴짜'를 맞았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성군의 회천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도 기존 합평 야구장과 비교·검토 및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요구받았다.

영암군이 추진했던 영암수목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운영 방안과 수요, 재원확보 방안 등을 보완한 뒤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60개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심사해 8개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해 보완한 뒤 재상정토록 재검토·반려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의 투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검중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추진 사업의 경우 60억 이상 200억 미만(도 추진 사업은 40억 이상 300억 미만)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이뤄지는 검중 절차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20억원 이상의 시·군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재검토된 사업은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100억·반려) ▲고흥 거금도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80억·반려) ▲장흥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190억·재검토) ▲보성 회천야구장 추가 조성사업(143억·재검토) ▲영암수목원 조성사업(107억·재검토) ▲영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87억·재검토) ▲고흥 마치산 테마공원 조성사업(60억·재검토)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146억·반려) 등 8개다.

장흥군이 3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부산면 지천리 일대(3만 5686㎡)에 100억을 들여 야구장(2면)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실시 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어 반려됐다.

장흥군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관산을 옥당리 일대에 도·군비 190억을 투입, 어머니 조각공원, 허그힐링 정원 등이 들어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기대효과·당위성,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수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보성군이 오는 2027년까지 회천면 벽교리 일대(1만 3800㎡)에 종합센터·캐치볼존 등을 추가로 짓는 회천야구장 조성계획도 경제·수익성 및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아 재검토 조치됐다. 충분한 수요 검토와 적정한 수치 전망, 합평 야구장과 비교·검토도 요구받았다.

영암군이 군서면 해창리 일대(9950㎡)에 국비(20억원)를 지원받아 60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연면적 2500㎡)을 짓겠다는 계획은 심사 당시 공모가 진행중이라 '재검토'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공모에 선정된 만큼 향후 재심

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아울러 고흥군이 고흥읍 등암리 일대에 마르얀느·마가렛 관련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2976㎡), 컨벤션홀 등을 조성하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사업 계획은 조건부로 통과시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흥군의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도 사업추진에 대한 유족 간 협의,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기존 작품들에 대한 고흥 전시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영광군이 오는 2026년까지 전남도(40억) 지원을 받아 66억원을 투입, 영광읍 남천리 일대(1069㎡)에 산모실(15실)과 영·유아실 등을 갖춘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연면적 1836㎡)을 조성하는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돼 지역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태양광 충전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해남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60억)도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외 진도·신안 만원주택 건립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순천·198억), 빛가람어린이스포츠클럽센터 조성사업(나주·196억),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사업(나주·151억), 해남 읍소리 역사문화원 정비육성 선도사업(144억), 곡성형 정년하우정타운 조성사업(113억) 사업 등은 조건부 의견을 달아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해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메이드 인 전남' 냉동김밥, 글로벌 시장 진출



### 전남도 세계일류화 상품개발 지원 10월 美 H마트·온라인 플랫폼 입점

전남에서 생산된 냉동김밥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전남도는 지역 1등 수출 품목인 김과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해 전남만의 특색을 가진 냉동김밥이 최초로 출시돼 지난 13일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김밥 차별화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산 냉동김밥은 10월 미국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판촉을 시작으로 한인마트인 한남체인과 북미 최대 아시아 식품 온라인 플랫폼 '위(Weee)'에 입점 예정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전남산 김밥의 인지도를 높이며, 해외에서 사랑받는 한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냉동김밥 생산업체인 현대푸드 시스템에서 수출 전문성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다. 2013년 창업해 전국 편의점 5천여 매장에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을 공급하는 등 오랜 기간 즉석김밥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양서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 열린다

### 27일 구인·구직 매칭상담관 운영 등

전남 동부권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가 열린다.

24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따르면 '2024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7일 광양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 광양·순천시, 고흥·보성·화순군, 여수고용노동지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보훈청, KOTR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에어릭스, 여업회사법인케이푸드㈜, ㈜광양기업, 파루인쇄전자, 전남기업㈜, 광양알루미늄㈜, 등 동부권 중소기업 및 외부기업 등 50개사(현장 25, 간접 25)가 참여한다.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년내일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대군인지원센터 등도 기관별 일자리정책을 안내하고 참가기업과 구직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채용홍보관과 전문직업상담사가 박람회 참가기업의 구인·구직 매칭 상담을 지원하는 매칭상담관도 운영된다. 무료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컨설팅, MBTI 성격유형검사 등도 실시된다. 전남도는 이날 박람회 참여기업과 전남중소기업지원협의회 등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 구직자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3개월간 42개 골프장 합동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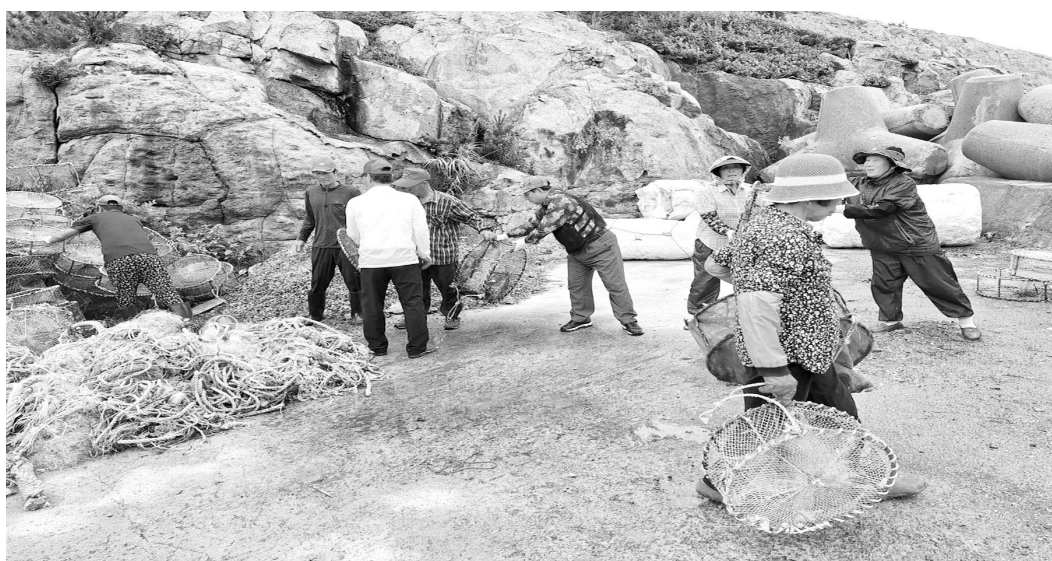
전남도가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42개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매년 정기적(상반기)으로 실시하는 점검이지만, 최근 워터헤저드 역사사고와 골프카트 추락사고 등 사고를 계기로, 소방본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추진, 안전관리

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안전점검 사항은 ▲코스 간 안전사고 위험 요인 ▲헤저드 주변 안전시설, 카드 및 주행도로 관리 상태 ▲건물 내외부 균열, 지반 침하 여부 ▲스프링클러·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 및 피난통로 설치 여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흥 지죽·여수 남면어촌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 전국 42개 어촌계서 601t 수거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에서 고흥 지죽어촌계와 여수 남면어촌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인 최우수상과 상금 5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경진대회는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을 목표로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7월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전국 42개 어촌계·단체에서 총 2007명이 참가해 601t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사진>



이번 경진대회는 폐어구의 효과적 수거와 관리를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어촌계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 사회이론을 형성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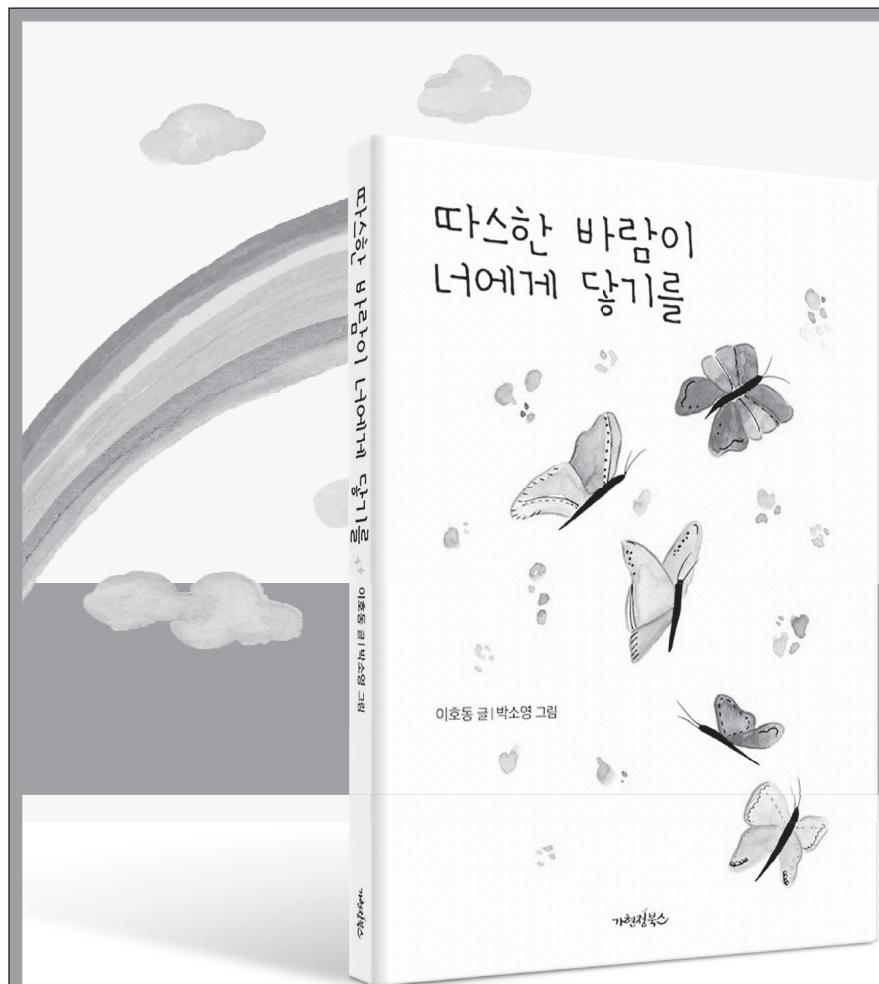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경진대회에 전남 어업인과 어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2개 단체가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은 관 주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어업인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폐기물을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어업인 교육 강화,

연안 정화활동 정례화, 민간해양환경단체 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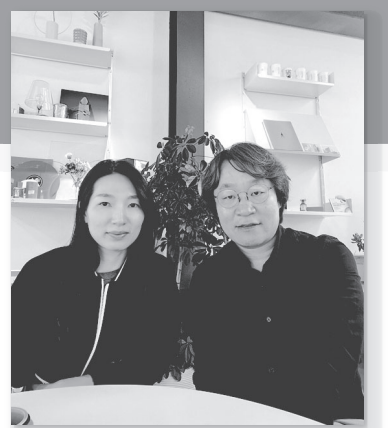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